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0. 01. (목요일)

제4회 한림대학교 모의유엔총회 대사단 OT 개최... 국제사회 평화·재건 논의의 첫걸음

- 10개 팀 참여, 의제 선정 및 국가 배정 완료 -



제4회 HLMUN 대사단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hlmun press)

제4회 한림대학교 모의유엔총회(HLMUN) 대사단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대사단의 역할과 향후 활동 일정을 안내하고, 공식 의제 선정과 국가 배정을 통해 본격적인 총회 준비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행을 맡은 장진원 사무총장은 대사단이 각 회원국을 대표해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협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참가자 개인의 소신이 아닌 담당 국가의 공식 입장과 국익을 바탕으로 발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다른 국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결의안을 작성한 뒤 표결을 통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활동 과정을 안내했다.

이어 총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팀별 협의와 투표가 진행됐다. 의제 후보는 ▲국제 해저 광물 개발의 허용 조건과 환경 보호 책임 기준 마련 ▲분쟁 이후 평화 정착과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 지원과 비용·역할 분담 ▲개발도상국의 필수 의약품·백신 공급과 생산 기술 협력 방안 등 세 가지로 제시됐다.

총 10개 팀이 참여한 1차 의제 투표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의제가 각각 4표, 세 번째 의제가 2표를 얻었다. 동률을 기록한 두 의제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진행한 결과, 두 번째 의제가 6표를 얻어 4표를 받은 첫 번째 의제를 앞섰다. 이에 따라 ‘분쟁 이후 평화 정착과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 지원과 비용·역할 분담’이 제4회 HLMUN의 공식 의제로 확정됐다. 대사단은 앞으로 분쟁을 겪은 국가의 평화 정착과 경제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책임을 나눌 것인지 논의하게 된다.

의제 선정 이후에는 각 팀이 대표할 국가를 정했다. 국가 선택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으며, 팀별 협의를 거쳐 순서대로 희망 국가를 선택했다. 그 결과 1팀 일본, 2팀 스웨덴, 3팀 네덜란드, 4팀 독일, 5팀 모로코, 6팀 르완다, 7팀 브라질, 8팀 라이베리아, 9팀 콜롬비아, 10팀 이라크로 국가 배정이 완료됐다.

국가 배정에 이어 1차 입장문 작성 방법과 제출 일정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각 팀은 선정된 의제에 대한 담당 국가의 입장과 그 배경

을 조사하고, 이를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으로 정리한 한국어 입장문을 10월 5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입장문은 2~3쪽 분량으로 작성하며, 유엔 총회에 적합한 어휘와 문체를 사용하도록 안내됐다. 팀별로 배정되는 교육지원팀 담당자는 입장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대사단의 준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사단은 10월 7일 첫 비공식 회의에서 1차 입장문을 발표하고, 11월 11일까지 총 네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국가별 입장을 조율하며 협의체 구성과 결의안 작성을 진행한다. 공식 총회에서는 국가별 입장문 발표를 2분 이내의 영어 발표로 진행하며, 회의 전반은 한국어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4회 HLMUN 공식 총회는 11월 18일 수요일 국제회의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각국 대사단은 국가별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거쳐, 분쟁 이후 평화 정착과 경제회복을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담당 부서 제4회 HLMUN PRESS팀	팀장	총괄	최다인
	팀원	기사 작성 및 번역	최다인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hallym40th_chanlan@naver.com			
한림대학교 제4회 모의유엔협회 hallymmun@gmail.com			